

2014년 중국도서관학회 도서관 연차대회 참관기



글 | 장우권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정책위원회 위원장
wk1961@chonnam.ac.kr

한국도서관협회 대표단(윤희운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필자, 유미이 한국도서관협회 회원협력팀 담당)은 중국도서관학회의 초청으로 '2014년 중국도서관학회 도서관연차대회(베이징, 2014.10.9.-11)'를 참관하기 위해 10월 9일 오후 북경행 항공에 몸을 실었다. '무엇을 보고, 익히고, 배우고 올까'라는 명제를 내세우니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 궁리하는 중 비행기는 어느새 북경공항에 도착하였다. 오후 2시 영접을 나온 북경시 동성구 외사판공실 직원의 상냥한 인사말에 귀가 번쩍했다. 우리말이 유창하다. 문득 신무기 제조술을 배우기 위해 조선말 청나라로 파견된 영선사(領選使) 일행들의 모습이 상상되어진다. 숙소로 향하는 거리의 모습에서 8년 만의 북경 방문임에도 낯선 이방인처럼 설렌다. 왜일까. 중국의 놀라운 발전 속도 때문일 것이다. 어느새 북경스씨테크호텔에 도착했다.

10월 10일 10시 30분 북경건국회의센터 3층 자금청에서 아름다운 남녀 MC의 사회로 '2014년 중국도서관학회 도서관연차대회'가 웅장하게 시작되었다. 중국 전역의 성을 대표하여 1,500여 명의 도서관인, 한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에서 40여 명의 도서관인들이 참여하여 입추의 여지 없이 큰 홀이 가득했다. 北京東城區長, 中國圖書館學會理事長에 이어 우리 윤희운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 한국도서관협회 대표단
(왼쪽부터 장우권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정책위원회 위원장, 윤희운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유미이 한국도서관협회 회원협력팀 담당)



▲ 축사를 하는 윤희운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도서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중국의 고사성어를 곁들인 명 축사였다. 뜨거운 박수소리에 가슴이 뭉클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저절로 우러나왔다. 문화부부장의 치사에 이어 시상식이 있었다. 최고의 영예상에 도서관 10개 관, 개인 8명이 호명되어 자랑스러운 휘호를 받았으며, 선정된 이유를 영상으로 담아 기관과 개인 모두의 업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 도서관 포커스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는 기관관이 있지, 개인상은 없다. 개인상 제도를 건의하고 싶다.

이어 許嘉璐全國人大常委會副委員長的 ‘도서관의 당면적 도전과 과제’의 강연이 있었다.

도서관을 바라보는 원로학자의 말씀이 하나하나 와 닿는다.

오후부터는 2일간에 걸쳐 다음과 같이 4개의 포럼과 23개의 세션에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표> 2014년 중국도서관학회 도서관연차대회 학술회의

포럼/세션	주제
주제포럼	중국 전통문화 장학포럼(Chinese Traditional Culture Scholar Forum)
주제포럼	메리 엘리자베스 우드와 시노 미국사서들(Miss Mary Elizabeth Wood and Sino-American Librarianship)
주제포럼	오픈 액세스: 도서관에 도전과 기회(Open Acc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Library)
주제포럼	도서관에서 공공서비스 시행하기: 정부, 사서, 자원봉사자, 이사회의 관계(Practicing Public Services in Libra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Librarians, Volunteers and Boards of Trustees)
세션1	그림책-아동 독서 시작(Picture Books-the Reading Start for Children)
세션2	도서관 수행평가 연구(Research on Library Performance Evaluation)
세션3	업무능력과 사서들의 평생교육(The Competency and the Continuing Education of Librarian)
세션4	도서관: 새로운 환경하의 사용자 이슈에 대한 해결책 전문가(Librarian: The Solution Expert Facing to User Issues under the New Environment)
세션5	사서 능력 승급과 민족집단 사서들의 발전(Librarian Ability Promotion and the Development of Ethnic Group Librarianship)
세션6	지역도서관협의회의 개선과 발전(Renovation and Development of Regional Library Association)
세션7	어떻게 도서관이 가족독서를 향상시키는가(How Do Libraries Promote Family Reading)
세션8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자원봉사 서비스(Library Volunteer Serv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세션9	텔레비전 도서관 건축에 대하여(The Practice and Exploration of the Television Library's Construction)
세션10	리소스 변화에 대한 사서들의 수집과제(The Mission of Acquisition Librarians with the Change of Resources)
세션11	지역문화배경의 발전과 지역문서작업(Local Documents Work unde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ulture Background)
세션12	도서관 독서관클럽과 독서향상(Library Reading Clubs and Reading Promotion)
세션13	도서관과 출판사와의 협력의 가치에 초점(Focus On the Value of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and Publishers)
세션14	아이의 영혼을 풍부하게 하는 독서(Reading Nourish Children's Soul)
세션15	도서관의 법률 참고문헌서비스: 실행과 발전 경향(Libraries's Legislative Reference Service: Practices and Development Trends)
세션16	디지털 리소스와 마이크로필름-지속가능한 문서 이미지 발전(Digital Resources and Microfilms-Sustainable Developments, Problems and Prospect)
세션17	공공도서관을 위한 협력관리구조: 발전, 문제점, 경향(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for Public Libraries: Development, Problems and Prospect)
세션18	도서관에서의 새로운 지지,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감각(New Support & New space & New sense in Library)
세션19	지식기관과 대표: 기술, 방법과 실행(Knowledge Organization and Representation: Technologies, Methods & Implementation)
세션20	중국전통문화 전문포럼(Chinese Traditional Culture Professional Forum)
세션21	전환과 업그레이드-대학독서향상 활동의 이론과 실제(Transformation and Upgrading-the Theory and Practice of University Reading Promotion Activities)
세션22	빅데이터 환경하의 기관 저장소 서비스와 구성(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Institutional Repository under Big Data Environment)
세션23	전통적인 사서: 미국 대학도서관의 탐구와 실제(The Librarian in the Transitional Time: Exploration and Practice in Academ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필자는 '메리 엘리자베스 우드와 중-미 사서들(Miss Mary Elizabeth Wood and Sino-American Librarianship)' 포럼에 참여하여 우드(Mary Elizabeth Wood:1861-1931)가 문화대학교에 도서관과 학과(Boone Library School: the Cradle of Chinese Librarians)를 세워 중국 도서관 운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우드는 중국도서관의 어머니였다. 또한 '어떻게 도서관이 가족 독서를 향상시키는가'의 세션에서는 많은 사서들이 참석하여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의 발제에 많은 사람이 패널로 참석하여 객석의 사서들과 활발하게 전개되는 세미나 현장의 모습에서 격동하는 중국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저녁 만찬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고위 도서관 관계자와 대만 대표들 간의 활발한 대화와 웃음 띤 모습에서 잠시 이 자리에 북한의 도서관 인사들이 참석했으면 필자도 이들과 같은 민족으로서 허심탄회하게 즐겁게 대화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뉘두리를 해본다. 잠시 중국분들에게 중국과 북한과의 도서관 교류와 학회 교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단다. 심지어는 교류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단다. 왜일까.

11일 오전에 한국도서관협회 회장과 중국도서관학회 비서장과의 면담이 1시간여 진행되었다. 2000년 9월에 상호 교류협정이 체결된 이후의 상황 점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를 진행하였으며, 비서장의 즉석제의로 '국가전적박물관(國家典籍博物館)' 견학을 하였다. 전적박물관에서는 고대 찬란한 문화유산인 갑골문자에서 금속활자, 고문헌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적의 역사를 1~3층에 걸쳐서 전시하고 있었다. 유구한 중국의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났건만 현실로 다가오는 듯하다. 우리도 중국 못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적문화유산이 있지 않은가.

12일 북경 공항으로 가는 길 냇가에 플라타너스가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네 고향은 농지정리로 플라타너스가 자취를 감춘지 오래, 이국에서 향수를 말다니 기쁨보다 슬픔이 밀려온다. 이곳의 플라타너스도 얼마나 그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려나... 중국의 경제발전과 미래의 중국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돌아가면 '제2의 플라타너스 도서관운동'을 전개해야겠다. 도서관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찾고, 아름다운 문헌, 아름다운 한국인을 찾자! 📖



▲ 전적박물관